

사설

조계종 정체성 찾으려면

조계종이 통합종단으로 출범한지 40년을 맞았다. 조계종의 40년을 돌아보면 60년대는 역사의 질곡 속에 휘말리며 비구 대처 분규라는 심한 몸살을 앓았고, 70년대는 더 집기에 단간함을 쓰느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80년대에는 연이은 종단대동으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으며, 90년대에는 내용의 여진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찾을 겨를이 없었다.

40년간의 긍정적 성과라면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전통종단, 장자종단이라는 대표성을 확실하게 획득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비로소 안정 속에 개혁에 힘쓰는 모습도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조계종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아직 많다.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선님은 새해 총무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전통종단으로서의 종교적, 문화적 정

체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종단 안정과 화합·수행가풍 진작과 개혁, 사회적 역할증진을 언급하였다. 덧붙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피력하였다. 진취적인 의지가 돋보이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 과제는 수행가풍 진작과 개혁이다. 그것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종단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를 수 있는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조계종은 여기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하며, 전신적·일회적 성과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조계종은 불교적 이념을 종단에 깊이 뿌리내리고 사회로 확장할 수 있도록 거듭 나아간다. 그리하여 국민적 존경을 받고 자문역할을 해낼 수 있는 종단으로 우뚝 서야 한다.

태고종 제2 창종 기대

중국선종의 사상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경전으로 알려진 《유마경》 방편품에는 다음과 같은 멋진 말씀이 있다. "갖가지의 다른 길(異道)을 받아도 바른 믿음을 훼손하지 않으며, 갖가지의 4거리에서 노닐어도 중생을 이롭게 한다." 출가자의 본분을 지켰던 것이다. 다양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그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편과 각종의 세계에 영합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이 다양한 만큼 보살도를 실천하는 수행자들의 모습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체 중생을 부처의 세계로 안내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조계를 버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상대적 가치관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양쪽으로 갈려 팽팽하게 대립해 왔던 태고종이 15일 분규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내적인 역량을 결집

하여 한국불교 발전과 시대에 부응하는 종지중흥을 선양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태고종의 종단분규를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던 종도들 내지 불자들에게 크나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종단화합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종단제도개혁에 착수하고 화합차원의 인사까지 단행했다니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여세를 몰아 조계종과 분규사찰문제를 해결하면서 제2의 창종이란 정신으로 결속을 다진다면 그동안 흐트러졌던 종세를 추스리고, 실추된 태고종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모아진다.

태고종 스님들뿐 아니라 신도들도 마음을 합해 시대요구에 부응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종단이 되도록 환골탈태의 변화를 이루고 전통 종단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템플 스테이·영산재·어울림한마당 등 '월드컵' 중 다양한 문화행사

주요종단, 한국불교 홍보 전략마련

태고, 천태, 진각종 등 불교계 주요 종단들이 월드컵 기간 중 외국인 포교를 위한 템플 스테이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벌인다.

조계종이 월드컵을 전후해 운영하는 '템플 스테이'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이들 프로그램은 각 종단의 전통과 특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의 다양성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각종(총무원장 효암)은 오는 4

월 서울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는 '2002 한일월드컵 성공기원 범불교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해 불교계의 화합과 우의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통리원과 대구교구청 및 심인당과 연계한 '템플 스테이'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각종은 범불교의식 및 염공 등 진각종만의 독특한 전통을 외국인들에게 이해시키는 방침 아래 밀교의식 시연 및 비디오 상영 등 세부 프로그램을 검토하

고 있다.

특히 청년회 및 신도회원들의 집을 민박으로 운영, 외국인들이 교도들과 함께 어울리며 법회에도 참석하는 등 진각종 문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도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지역의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템플 스테이'를 운영한다. 부산 삼광사는 천태종의 수행가풍과 문화에 중점을 둔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사찰을 관광코스로 지정해 외

국인들에게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투어' 형태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울산 정광사, 서울 관문사, 대전 광수사도 '템플 스테이'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종단과 협의 중에 있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월드컵을 전후한 5·6·7월에 걸쳐 60일간 서울 봉원사에서 매일 한차례씩 영산재를 시연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스님들이 선보일 영산재는 불교전통문화의 진수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총지종(총무원장 혜암)은 불교 문화와 종단 홍보를 목적으로 5월 말 부산에서 월드컵 성공기원을 위한 음악제를 개최하며, 관음종(총무원장 홍파)도 5월경 월드컵 성공기원 대법회를 열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강원 수료자로 입학자격 제한

승가대학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베)은 16일 교육원 회의를 열고 승가대학원 3기 학인모집과 관련해 입학자격 및 수업연한을 확정했다.

입학자격은 기존에 종단 기본교육기관 4년 과정(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수료자도 지원 가능했던 것을, 반드시 강원을 수료해야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승가대학원이 강사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강원교육을 받은 자에게 입학자격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빚어졌던 수업 연한은 당초 2년으로 개정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고 종전의 3년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승가대학원 원서 접수 마감은 2월5일까지다.

한명우 기자



종단합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한 불교지도자들은 불교발전을 위해 서로 화합할것을 다짐했다.

국운 융성·남북통일 기원

종단합 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46(2002)년 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국운융성과 남북통일을 기원했다. 이날 정대선님은 법어를 통해 "올 한해는 탐욕을 버리고, 청정한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도록 정진하자"고 말했다.

신년하례법회에는 운산(태고종 총무원장) 운덕(천태종 총무원장) 효암(진각종 총무원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지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무비(조계종 교육원장)스님, 서돈각 진흥원 이사장, 문화관광부 남궁진 장관 등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신행혁신 5계학교

3월 첫 개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10일 신행혁신 실무단을 구성하고 오는 3월 제1차 5계학교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신도회는 조계사, 봉은사를 중심으로 3월중 1차 5계학교를 열어 평가회를 가진 후 6월중 2차 5계학교를, 9월중 3차 5계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중앙신도회는 5계학교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교본을 마련하고 5계실천운동본부도 결성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재가자도 학장취임 가능"

전국불교대학 대표자회의

조계종 포교원 의견수렴

'신도전문교육 시행령(안)'이 지난해 말까지 입법예고된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오는 2월 1일 총령 시행에 앞서, 17일 전국 불교대학 대표자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쟁점이 된 사항은 신도전문교육기관(불교대학)의 임원 자격과 수강생 자격, 인가 요건 등. 포교원은 스님으로 한정했던 신도전문교육기관 학장의 자격을 수정

해 재가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학장의 자격은 승랍 15년 이상의 조계종 스님 또는 신학경력 10년,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조계종 신도로 의견이 모아졌다. 학장의 임명은 전문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포교원의 승인을 받아 포교원장이 임명(기존 명은 불교대학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강생은 반드시 신도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는 규정은 입학 후 6개월(또는 1년)이내에 신도기본교육을 수료할 경우도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첨부될 전

자성학교 교사

유급제 시행

진각종 포교부

진각종 포교부(포교부장 혜명)는 어린이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성학교(어린이 불교학교) 교사 유급제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자성학교 교사 유급제는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어린이 포교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불교계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불교 NGO 세계로...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주필: 김병규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mahamall.co.kr
www.yeol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신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과와 관련한 문의나 부고, 제보전화: 722-4162 FAX: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사찰에 봉안하면 칭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입니다.

대장경을 읽으시다.
대장경을 봉안하십시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십시오.

■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금)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37-8881, 02-722-4162 팩스: 02-737-0697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행화가 화려한 담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장엄미: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하나비자카드로 봉인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하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하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실신도가 하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 1질(4책 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장경각은 사찰 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